

# 제1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및 2025 고령친화 정책 포럼 계획(안)

“Age-Tech 산업과 고령친화 공간 :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”

## 1. 추진배경

- 2024년 기준 노인인구 1,024만 명을 돌파하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. 이로 인해 의료·돌봄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, 고령자의 지역사회 내 지속거주(Aging in Place, AIP)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- 정부는 고령자복지주택, 실버스테이, 노인 의료·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며 고령자 주거·돌봄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. 그러나 고령자 돌봄 인력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돌봄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과 효율적인 공간구성이 가능한 통합 주거 모델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
- Age-Tech는 고령자의 생활자립(AIP-Tech), 돌봄최적화(Care-Tech) 등을 지원하는 기술 기반으로, 기존의 개인 소비재 중심에서 벗어나 건축·도시 단위의 기술 연계 모델로 확장이 필요함. 특히,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실버경제의 부상 속에서 Age-Tech 기반의 주거모델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,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, 산업계 간 협업을 통한 정책화가 요구됨
- 이에 따라 본 포럼은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, 정책실무자들이 모여 Age-Tech의 정책적·공간적 활용 가능성을 공유하고, 고령자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여 고령자를 위한 건강한 주거복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

## 2. 행사개요

- 주 제 : Age-Tech 산업과 고령친화 공간 :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
- 일 시 : 2025년 5월 26일 (월), 14:00 ~ 16:30
- 장 소 :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
- 주 최 :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,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, 건축공간연구원, 한국노년학회
- 주 관 : 건축공간연구원, NRC인구정책연구단(NRC정책연구지원실무위원회)
- 참 석 자
  - (개회·환영·축사)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, 신동천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,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장, 이윤환 한국노년학회 회장
  - (발제)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에이징사업팀장, 박형순 KAIST 헬스사이언스 연구소장,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
  - (토론)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(좌장),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, 김영선 경희대학교 에이지테크 융합센터장, 권진희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, 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장
  - 이외 본 주제에 관심 있는 학계 전문가, 실무자 약 100여명 예상

### 3. 일정

사회 : 박혜수 아나운서

시간	식순	내용
13:30 ~ 14:00	30'	• 등록 및 자료 배포
	5'	• 인사말씀1 주형환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
	5'	• 인사말씀2 신동천  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
14:00 ~ 14:30	5'	• 인사말씀3 박환용   건축공간연구원 원장
	5'	• 인사말씀4 이윤환   한국노년학회 회장
	10'	기념사진 촬영
세션 I. <Age-Tech 산업과 고령친화 공간 :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>		
	15'	• 국내·외 Age-Tech 산업 동향과 대응방향 김우선 팀장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에이징사업팀
14:30 ~ 15:15	15'	• Age-tech 로봇틱스 기술 현황 및 발전방향 박형순 소장   KAIST 헬스사이언스 연구소
	15'	• Age-Tech기반 고령자 주거 실증 모델과 공간 적용 전략 고영호 연구위원   건축공간연구원 공간AI·빅데이터본부
15:15 ~ 15:30	15'	Coffee Break
세션 II. <종합 토론>		
		• 좌장 최문정 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
15:30 ~ 16:20	50'	• 토론자 (4인) 김홍수 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영선   경희대학교 에이지테크 융합센터장 권진희   국민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 고형우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장
16:20 ~ 16:30	10'	폐회 및 마무리

※ 발제 제목은 발제자의 기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